

numbers 제 30호



주요 내용

2020. 01.10

1.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2. ① 한국인의 2020 새해 경기 인식, 작년보다 비관론 감소
② 전국 시도지사 작년 하반기 직무 평가, '잘하고 있다' 51%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우리나라의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국가적 난제 중 하나가 인구 문제이다. 소위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올해는 베이비부머 그룹 중 첫 세대인 55년생 70만 명이 처음으로 65세에 진입하게 되고, 앞으로 10년간 805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편입된다. 올해부터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 평균을 따돌리고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한국은 2045년에 65세 고령층 비율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67년에는 국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며, 한편으로 생산연령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어 생산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30호에서는 한국의 미래인구 특히 고령화 현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총인구,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0년 5,178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774만 명까지 떨어져, 현재 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총 인구 추이(1980년~2050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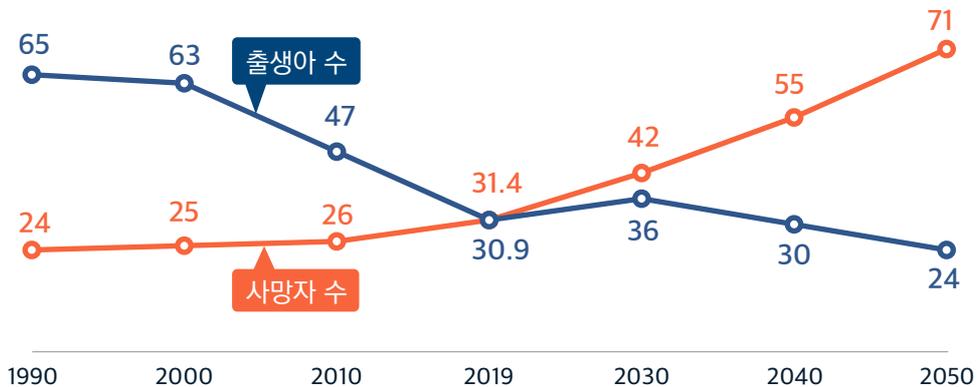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년', 2019.03.28

● 인구 자연 감소(출생아(사망자)는 2019년부터 이미 시작됨

- 1990년에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2.7배나 많았는데, 2019년에 교차되면서, 2050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배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인구 자연 증가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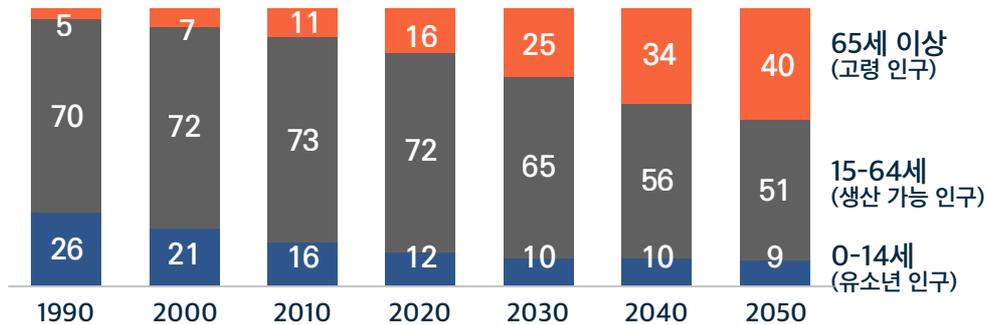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년', 2019.03.28

2 30년 뒤, 유소년 1명과 노인 4.4명이 함께 산다

- 30년 전 1990년에는 14세 이하 유소년 비율이 26%,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5%였고, 2020년에는 유소년 12%, 노인 16%로 노인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고, 30년 후인 2050년에는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유소년 9%, 노인 40%로 노인 중심의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1980~205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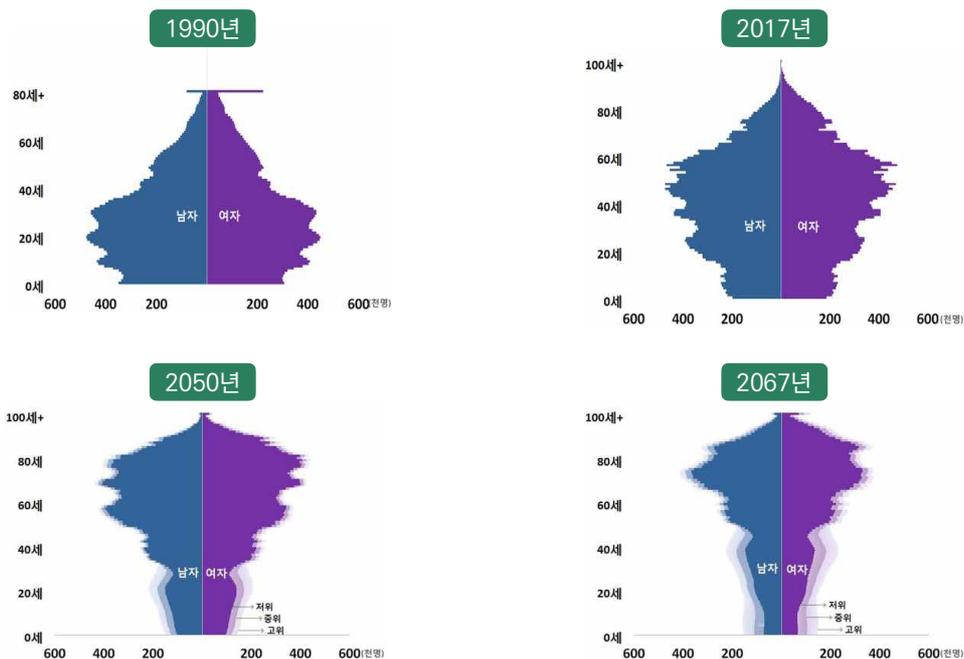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년', 2019.03.28

3 인구 피라미드

- 2017년은 30-50대가 두터운 향아리형이나,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됨

[그림] 인구 피라미드(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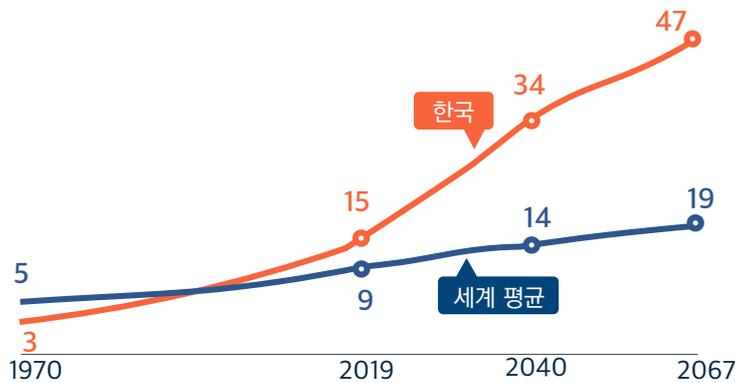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년', 2019.03.28

4 한국,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르다

- 2010년대까지는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세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
- 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첫 세대인 1955년생 70만 명이 올해 65세에 진입하고, 앞으로 10년간 1955~1964년생 805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요인이 큼
- 1970~2067년까지 고령화 비율 증가를 보면, 세계 평균이 14%포인트 증가할 때 한국은 44%포인트 증가하여,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남

[그림] 고령 인구(65세 이상) 구성비 추이 (세계 평균과 비교)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9.0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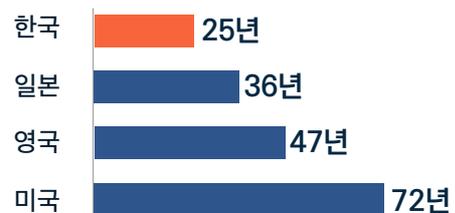
● 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20.3%)로 진입 예상

-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7.2%) → 2018년 고령사회(14.3%) → 2025년 초고령사회(20.3%) 진입 예상되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데 2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일본은 36년, 미국은 72년으로 한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고령화 관련 각 단계별 진입 연도 (%)



[그림] 주요국 대비 한국의 고령화사회 → 초고령사회까지 걸리는 속도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9.09.02.

** note)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7% 이상인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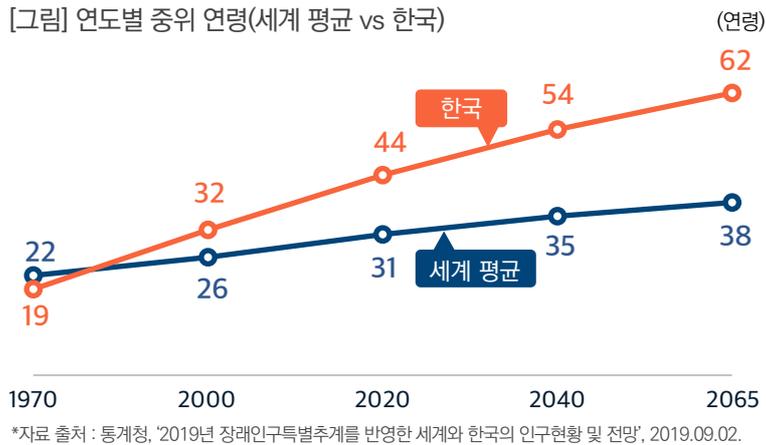
고령 사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4% 이상인 사회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인 사회

*** %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임

5 중위 연령, 2020년 44세, 2065년 6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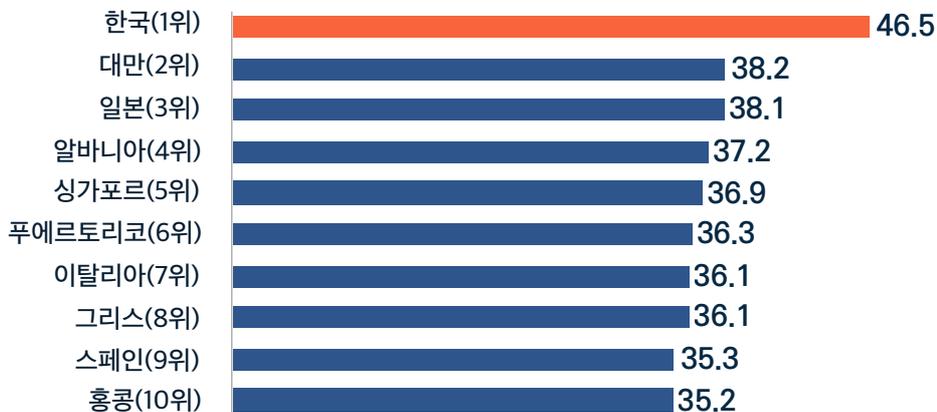
- 중위 연령은 2020년 44세에서 2065년 62세로 늘어나, 45년 사이에 18세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 세계 평균 중위연령과 비교하면, 2000년에는 세계평균 26세, 한국 32세로 6세 차이를 보였는데, 2020년에는 13세 차이를, 2067년에는 무려 24세 차이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6 한국, 2067년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은 2045년에 65세 고령층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며, 2067년에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2067년 고령층 비율은 47%인데 2위 대만 38%과 큰 격차를 보이는 압도적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067년도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국가별 순위(상위 10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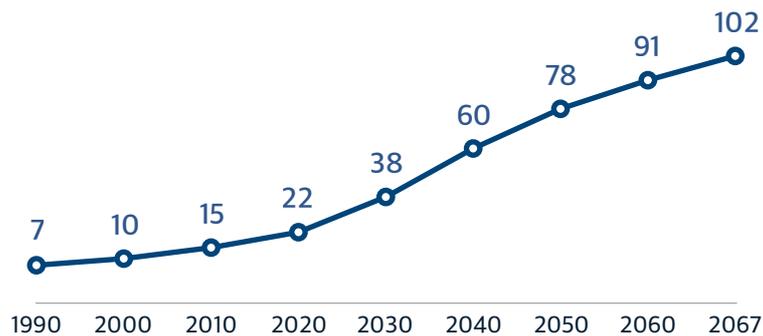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9.09.02.
중앙일보, '한국, 2045년 가장 늙은 국가... 절반이 일해서 절반을 부양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68357>, 2019.09.02

● 2067년, 생산 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함

- 생산 연령 인구 100명 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연령 인구수를 ‘노년부양비’라 하는데, 2000년 10명에서 2020년 22명으로 증가하였고, 2065년에는 10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02명까지 될 것으로 생산 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됨

[그림] 노년부양비* 추이 (생산 연령 인구 1백명 당,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67', 2019.03.28.
** 노년부양비 :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수

7 개신교 미래학교 인구 변화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교회학교 교세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8~2017년까지 10년간 교회학교 학생수는 평균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동일 연령대 총 인구는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회학교가 1.7배 정도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교회학교 연령대 10년간 변화(예장 통합 vs 총인구)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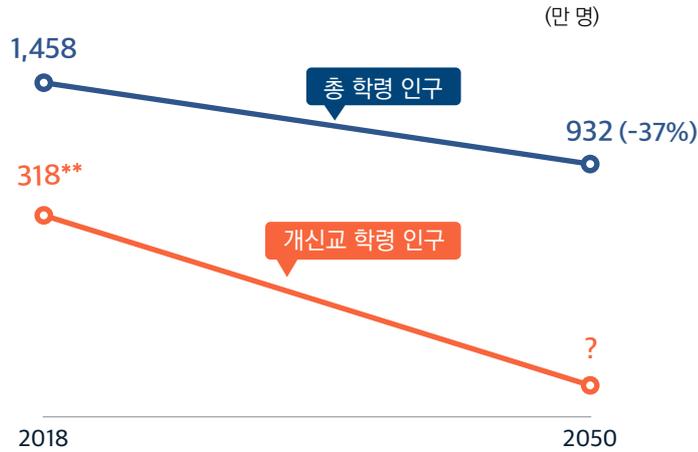
구분	0-9세			10-19세			합계(0-19세)		
	2008년	2017년	증감률	2008년	2017년	증감률	2008년	2017년	증감률
예장 통합	190	137	-28%	382	234	-39%	572	371	-35%
총 인구	5,097	4,364	-15%	6,825	5,160	-24%	11,922	9,524	-20%

*0-9세 : 영아부+유아부+유치부+유년부, 10-19세: 초등부+소년부+중고등부
자료 출처 : 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교세 통계, 통계청

● 미래 교회학교 인구 추정

- 통계청 자료 기준 21세 이하 학령 인구는 2018년 1,485만 명에서 한 세대 뒤인 2050년에는 932만 명으로 37%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교회학교 인구는 해당 연령대 총 인구 급감 요인 외에 종교적으로 종교인 감소, 가나안성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총 인구 중 학령 인구 감소율 37%보다는 훨씬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050년 개신교(21세 이하 연령층) 추이(총 인구 대비)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년', 2019.03.28.

**2018년 개신교 학생 인구 : 2015 센서스 조사 결과 19세 이하 개신교 인구 비율 21.4% 적용

8 시사점

한국사회의 인구 변동의 특징은 2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인구 증가율 둔화(3p)이고 둘째는 고령화(4,5p)이다. 인구 증가율 둔화 내지 인구 감소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적 생산력이 감소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 비율이 높아진다. 사회적 발전도 위기를 맞게 된다.

인구 증가율 둔화 및 인구 감소는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베이붐세대의 인구 증가에 발 맞춰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외적인 전도 전략 집중, 재정의 확대 지출 등 성장 시대의 관습이 몸에 배어 있다. 이미 교인이 늘지 않고, 주일학교 학생이 줄고 있다(7p).

이제 교회는 성장 시대의 옷을 고령화 시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첫째, 연령에 따라 세분화한 주일학교 체제가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주일학교 학생이 줄어들면서 세분화한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통합 교육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 통합 교육을 위한 준비, 즉 교재 발굴과 교수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교회에서 노인 비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노인 교인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70세에 은퇴하면 교회의 사역에서 물러나고 방관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70세가 넘어도 교회의 주체로서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어야 한다. 덧붙여 점점 늘어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전도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특히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고 있어, 재정 운영을 재정 감소 시대에 맞게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구 증가율 둔화 및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 때문인데 저출산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서 기인한다([넘버스] 제 25호 참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맞서 가정과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 시대 목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한국인의 새해 경기 전망, 개인 살림살이 전망 조사 결과
전국 시도지사 작년 하반기 직무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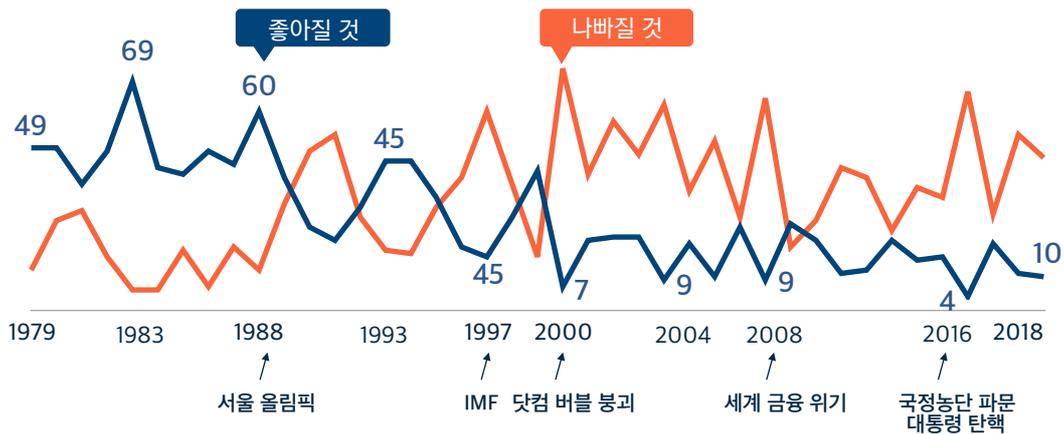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한국인의 2020 새해 경기 인식 작년보다 비관론 감소

- 작년 말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새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보다 '좋아질 것' 10%, '나빠질 것' 46%, 작년과 '비슷할 것' 42%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대비 긍정 응답은 1%p 증가, 부정 응답은 7%p 감소하여 비관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부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음.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1년간 조사 중 '새해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셌던 2016년의 4%임

[그림] 새해 경기 전망('좋아질 것' 비율, 1979~2019) (%)



[표] 새해 경기 전망(2018 vs 2019) (%)

년도	좋아질 것	나빠질 것	비슷할 것	계
2018	11	53	36	100
2019	10	46	4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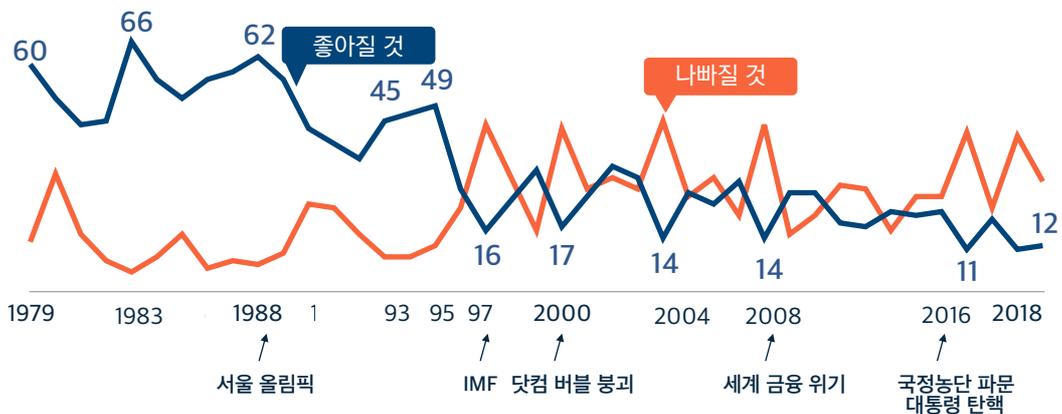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새해 전망 여론조사', 2019.12.27.
(매년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 개별면접조사, 2019년은 2019.11 조사)

● 2020 새해 개인 살림살이 역시 작년 보다 비관론 감소

- 새해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 12%, ‘나빠질 것’ 26%, ‘비슷할 것’ 57%로 나타났는데, 2019년 대비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살림살이 전망 추이는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으며,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돈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음
- 지난 41년간 조사 중 새해 살림살이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6%, 최저치는 2016년과 2018년의 11%로 나타남

[그림] 새해 개인 살림살이 전망(‘좋아질 것’ 비율, 1979~2019)

(%)



[표] 새해 개인 살림살이 전망(2018 vs 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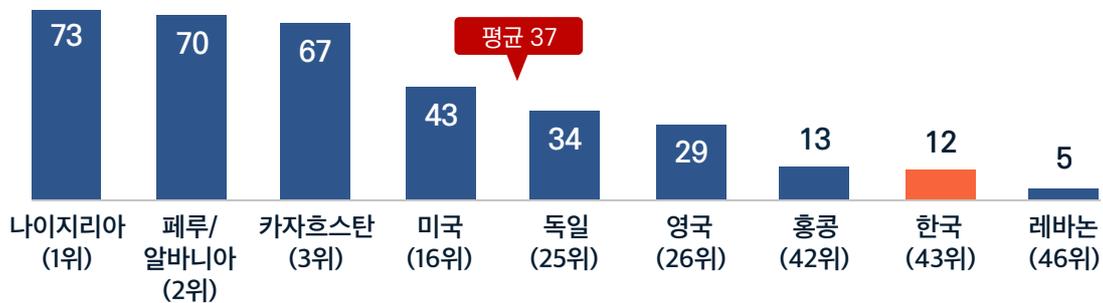
년도	좋아질 것	나빠질 것	비슷할 것	계
2018	11	41	48	100
2019	12	29	57	100

*자료 출처 : 한국갤럽, '새해 전망 여론조사', 2019.12.27.
(매년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 개별면접조사, 2019년은 2019.11 조사)

● 새해 개인의 살림살이 ‘좋아질 것’, 세계 46개국 중 한국 43위로 최하위권

-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새해 살림살이 전망은 전체 평균 ‘좋아질 것’ 37%, ‘나빠질 것’ 25%, 작년과 ‘비슷할 것’ 31%으로 낙관론이 비관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낙관적인 나라는 ‘나이지리아’(73%)이며, 가장 비관적인 나라는 ‘레바논’(76%)으로 조사됨
- 한국은 ‘좋아질 것’ 12%로 46개국 중 43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함
- 이번 조사에 참여한 46개 나라 중 26개국은 새해 낙관론이 10%포인트 이상 우세하고, 13개국은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Hope Index, 이하 ‘희망 지수’)가 10%포인트 미만임.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은 비관론이 낙관론을 10%포인트 이상 앞섬

[그림] 새해 개인 살림살이 인식 (‘좋아질 것’, 세계 46개국 조사, 주요 국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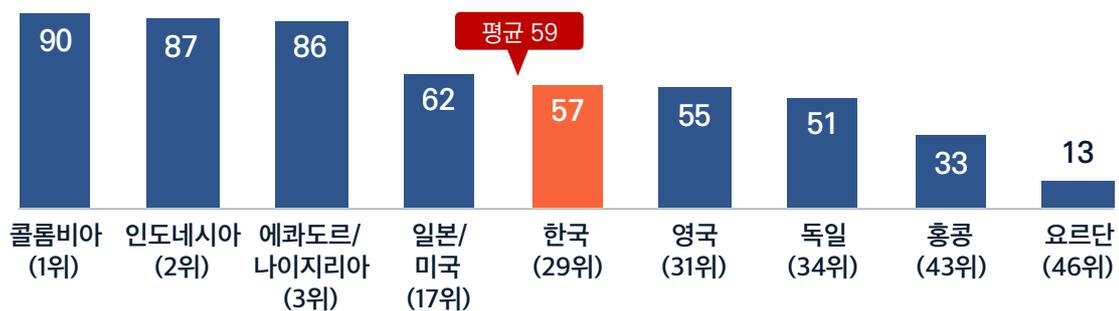


*자료 출처: 갤럽 인터네셔널, 'Gallup International End of Year Survey 2019'. (46개국 성인 총 45,676명, 면접/전화/온라인조사, 2019.11~12월)
 ** '좋아질 것'만 표시하였고, '나빠질 것', '비슷할 것'은 표시하지 않음

●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57%, 46개국 중 29위

- 우리나라 국민에게 현재 본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관적 행복도’를 묻은 결과 ‘행복하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으며, 46개국 중 29위에 위치함

[그림] 주관적 행복도 (세계 46개국 조사, 주요 국가 표시)



*자료 출처: 갤럽 인터네셔널, 'Gallup International End of Year Survey 2019'. (46개국 성인 총 45,676명, 면접/전화/온라인조사, 2019.11~12월)
 **5점 척도 항목으로 '행복하다'(매우 행복하다+행복하다)으로 표시하였고, '어느 쪽도 아님'과 '비행복'(행복하지 않다+매우 행복하지 않다)은 표시하지 않음

“주관적 행복감이 타고난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적 인식을 드러낸다면, 새해 전망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발전 방향을 반영한다. 46개국 중 주관적 행복감이 타고난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적 인식을 드러낸다면, 새해 전망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발전 방향을 반영한다. ... 새해 전망과 개인의 행복은 해당 국가의 부와 관련이 없으며, 현 정치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 요인이다.”(칸초 스토이체프, 갤럽 인터네셔널 회장)

2

전국 시도지사 작년 하반기 직무 평가, '잘하고 있다', 51%

- 2019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 평가에 대해 우리 국민 51%는 '잘하고 있다'로 응답하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31%로 응답하여, '잘하고 있다'가 20%p 더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보면 '잘하고 있다'는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이 68%로 가장 높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이 49%로 가장 높음

[그림] 시도지사 직무 평가('잘하고 있다' vs '잘못하고 있다', 상위 5위) (%)

순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비율	시장	비율	시장
1	51	하반기 전국 평균	31	하반기 전국 평균
1	68	이용섭(광주)	49	오거돈(부산)
2	65	김영록(전남)	43	원희룡(제주)
3	62	이시종(충북)	42	최철호(울산)
4	56	최문순(강원)	39	박원순(서울)
5	55	송하진(전북)	35	박남춘(인천)
6	55	양승조(충남)	33	김경수(경남)
7	53	이재명(경기)	31	이재명(경기)
8	53	하태정(대전)	30	권영진(대구)
9	53	이철우(경북)	25	최문순(강원)
10	51	권영진(대구)	23	송하진(전북)
11	48	박원순(서울)	22	이철우(경북)
12	44	김경수(경남)	22	하태정(대전)
13	44	송철호(울산)	18	이시종(충북)
14	44	원희룡(제주)	18	양승조(충남)
15	42	박남춘(인천)	15	이용섭(광주)
16	36	오거돈(부산)	10	김영록(전남)

*자료 출처 :한국갤럽, '2019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2020.01.06.
(전국 만 19세 이상 23,069명, 전화조사, 2019.07~12)

** 세종특별시는 사례수가 적어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부양 떠안는 55년생](#)

중앙일보_2020.01.09

“장모 간병 30만원, 미혼 자녀 50만원…55년생 허리 휘다”



[중장년 재취업의 바늘구멍](#)

중앙일보_2020.01.09

“이력서 100번 내도..머나먼 중장년 재취업”



[중산층의 기준! 정부와 국민의 큰 인식 차이](#)

매일경제_2020.01.02

“중산층 인식差…정부 ‘月 230만원’ vs 국민 58% ‘최소 500만원’”



[의사,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다!](#)

한국일보_2020.01.08

“의대냐, 아니냐” 대치동의 이분법… 의대 합격자 수로 고교 서열화”



[숫자 “8,400,000”](#)

한겨레신문_2020.01.05

“통계학자들이 선정한 2010년대의 숫자 ‘8,400,000’”



[반려동물, 반려묘의 의미 그리고 실태](#)

중앙일보_2020.01.04

“힐링 아이콘·개인주의 표상·예술가의 뮤즈..‘냥이’ 전성시대”



[세태를 보여주는 신조어](#)

조선일보_2020.01.09

“웃프다·혼밥·딸바보… 시대 담은 ‘새말’에 학자들도 심쿵!”

스토리가 있는 기사



[노벨 경제학 수상자\(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미래](#)

중앙일보_2020.01.06

“저출산, 한국 경제에 최대 위협..미래 이끌 인재 줄어든다”



[리더의 적절한 부정적 정서 표현](#)

동아일보_2020.01.06

“리더는 ‘적당히·잘’ 화내야 한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